



사랑의 샘

2007



통권124호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

한나요양원 · 한나그린힐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이메일 : echnw@hanmail.net

노년생활의 종합안내서를 소개합니다

어르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박양조 편저

한나요양원 원장 / 한나원교회 목사

어르신들께
애정을 보냅니다

국판 188면 4,500원

*단체주문을 환영합니다

(연락처 : 031)632-1357)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설명하고, 현실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필요시에 꼭 알아야 할 노인복지시설의 입주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 본서의 특징 -

1. 노년생활의 종합안내서로 어르신들의 동반자가 된다.
2. 노년 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3.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소형책자로 제작했다.
4. 어르신들을 아름다운 황혼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5. 교회의 경로대학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6. 어르신들을 이해하고 전도하는데 필수적인 책이다.
7.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에게 효도용 선물이 될 수 있다.

2007년 사랑의 샘(겨울호)

창간 1986. 2. 1



표지설명 : 아기가수가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통 권 : 124호
 발행인 : 정영록
 편집인 : 박양조
 발행일 : 2007. 12. 15

한나요양원	한나그린힐
주 소 :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4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
전 화 : 031) 632-1357	031) 631-1911
팩 스 : 031) 633-0850	031) 631-1922
이메일 : echnw@hanmail.net	igh2005@hanmail.net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사진위원 : 김성보
 편집기자 : 오은숙, 이정환, 박영옥, 이소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 : 6)

- 2 **원장 에세이**
어르신들을 사랑하며
- 4 **요양원소식**
한나요양원 이런일 저런일
- 6 **그린힐소식**
한나그린힐 이모 저모
- 8 **봉사자의 글**
어르신들과 함께한 생활건강 체육
- 9 **어르신의 글**
날마다 생활이 감사의 나날이에요
- 10 **좋은 이웃**
정성껏 방문해주신 분들
- 12 **얼린정보**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 십계명
- 13 **행사 이벤트**
제22회 경로잔치 및 대표이사 이·취임식
- 14 **도움의 손길**
사랑과 나눔, 정성과 보람
- 16 **직원글**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어르신들을 사랑하여



원장 박 양 조

성탄절 이 되었다. 백화점과 호텔은 크리스마스트리를 거창하게 하여 번적이고 있다. 연말도 겹쳐서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 젊은 사람들과 어르신들의 느낌이 다를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낭만에 젖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정신이 없고 허전할 것이다. 그것도 건강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 불편하여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계절의 변화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겨운 생활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현재의 어르신들은 가장 어려운 세대를 살고 계신다. 과거의 시대적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형편이 불행하거나 난처한 분들이 많이 계신다. 무료시설에 입주하신 분들 중에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동안 젊고 건강할 때에는 동네에서 날뎀팔이를 하거나 친척집에서 함께 생활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자 시설입주를 선택하여 들어오시게 되었다.

실비시설에 입주하신 분들은 건강할 때에는 가족들과 단란하게 사셨지만 안타깝게도 몸이 불편해져서 함께 생활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시설입주를 결정하게 되었다.

처음에 시설에 들어오셔서서는 그동안 정들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 섭섭하셨겠지만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연락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입주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생활을 하하게 된다. 우리는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사는 새로운 가족이다.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이다. 생신일이 되면 케이크를 사다가 촛불을 켜고 직원들과 친구들의 축하를 받



오세체 어르신 생신축하



아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으며 노래를 부르고 힘차게 촛불을 끈다.

우리는 자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매일새벽기도를 드린다.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히 묵상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한다. 기도드릴 때 맨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드린다. 그 후에야 여러 가지를 간구한다.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개별적인 기도를 드린 후에 찬송을 부르고 성경말씀을 읽고 성경해설을 듣는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일반교회와 똑같이 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입주자와 직원들로 구성된 성가대와 반주에 따라 목도를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여 찬송을 부르고 대표기도를 드린다. 성경말씀을 봉독하고 한나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정성껏 헌금을 하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다.

주일 오후에는 찬양예배를 드린다. 전도사나 이웃교회의 중창단이 방문하여 찬양인도를 한다. 특송은 입주자나 직원들 그리고 방문자가 한다. 설교는 외부강사가 할 때도 많이 있다.

수요기도회는 전도사가 인도하며 간절히 기도드리고 말씀을 읽는 설교를 한다. 직원들이 대표기도하며 입주자들의 건강과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시설운영과 직원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우리 한나원의 원훈 중에는 “서로 사랑하자”가 있다. 직원들이 입주자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과 입주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며, 한쪽은 사랑하기만 하고 다른 쪽은 사랑받기만 해도 안 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부모가 내리사랑만 하고 자녀는 사랑받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전지전능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친히 제물이 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족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편안한 생활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다.



신흥교회 바울선교회 특송



대월어린이집 어린이들

한나요양원 이런일 ~ 저런일 ~



운영간담회

어르신대표들과 원장님, 사무국장님이 한자리에 모여 더욱더 편안하고 행복한 한나원을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한나원을 기대해봅니다.

충주호 가을 나들이

너무도 좋은 날, 담양 관광도 하고 유람선도 타고... 어르신들 멋지네요.
아름다운 시간, 오래 오래 간직하세요.
파이팅!



에버랜드 가을 나들이

사파리 구경도 하고, 맛있는 점심식사도하고
국화 가든에서 사진도 찰각!
너무 좋은 에버랜드~
우리어르신들 재미있게 사세요.





직원들의 주왕산 가을 등반

역시 산이 좋네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갑니다.
 우리들의 파이팅하는 모습 보세요.
 직원들 간의 못 나눈 이야기 많이 나눴구요. 친목도 돈독하게 되죠.
 기분전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 더욱 더 잘 모시겠습니다.^*^



노란호박이 맛있어 보이시오

풍성한 가을, 우리 한나원에도 가을이 찾아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오순도순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며 원에서 키운 호박을 다듬고 계십니다.
 맛있는 호박죽 기대 됩니다.~

직원 현황 (11월말 현재)	원장	총무	생활복지사	족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계
	1	1	1	1	3	1	1	16	2	1	28
입주자 현황 (11월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계		입주자	퇴소자			
	15명		62명		77명		8명	9명			

한나그린힐의 이모 ~ 저모 ~



♥ 생활체조 프로그램 시간

- 우리 어르신들 -

젊은 사람 못지않게 유연하고 날렵하게 잘 따라하신답니다.

♥ 김장준비

김장준비를 위해 어르신들이 모인 배추 시래기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다듬고 있어요





♡ 종이접기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훌륭하고 멋지죠~!!



♡ 11월의 생신 어르신 축하

11월 생신을 맞이하신 정동애, 박진자, 이영숙 어르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꼭이요!!

입주자 현황 (11월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계	입주자	퇴소자
	14명	28명	42명	4명	3명

직원 현황 (11월말 현재)	생활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계
	1	1	1	8	2	1	15

※ 원장, 사무국장은
겸임.

어르신들과 함께한 생활건강체육



생활체육 강사 임화선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요양원 어르신들의 체조수업을 맡고 있는 임화선입니다.

단풍이 예쁘다 싶었는데 벌써 눈발이 흩날리고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겨울입니다. 제가 한나요양원을 다니게 된지가 벌써 2년이 다되어 가네요.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로서 노인 전담을 맡게 되어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수업을 하면서 처음엔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생소해하시기도 했지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뵈 때는 너무 안타깝기도 했구요. 그런 분들까지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늘 고민하고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서 하시든 앉아서 하시든 잘 따라 주시고 열정적으로 운동하시는 시간만큼은 즐거워하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웃음이 많아지시는걸 보고 저는 늘 감사한답니다.

굉장한 각오나 특별한 사명감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성심을 다해 어르신들을 대할 때 그 보람이 꼭 저에게 돌아오는걸 보고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도 커 집니다. 항상 따뜻한 말씀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어르신들께 감사 드리구요. 한나요양원을 위해 애쓰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 어르신들 언제나 언제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저와 함께 하나 둘 셋- 파이팅!



날마다의 생활이 감사의 나날이에요

하나그린힐 김영복 권사

제가 그린힐에 온 것은 올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의지하며 교회와 집을 오가며 생활을 하였지만 집과 교회가 멀어 항상 힘들었습니다. 또한 관절염 증세가 있어 비가 오면 쭈시고 걷기가 불편하여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그린힐의 소개를 전해 듣고 교회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 꼭 입소하고 싶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처럼 일상생활도 편히 할 수 있고 병원과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바로 한 건물아래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입소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소리에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정기도 한 달 후에 그린힐에서 연락이 와서 입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요. 작정기도를 시작한지 정말 꼭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입소하여보니 방과 자리도 너무 맘에 들고 매일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신앙생활인 예배와 정규 프로그램과 나들이 프로그램 등 규칙적인 생활과 병원이용을 할 수 있는 생활에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관절이 좋지 않았는데 매주 수요일에 있는 수지침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혼자서 스스로 복도를 하루 30번씩 왕복하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물리치료를 병원에 가서 받아 본 적도 없고 수지침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나아져 활동하는데도 수월하고 운동이며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에 저를 이곳 그린힐로 인도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린힐 모든 식구들과 아울러 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오랜 가족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성껏 방문해 주신 모든

● 한나요양원



9/21 리치빌어린이집

“할아버지, 할머니 기쁘게 해드리러 왔어요”
 씩씩하게 인사하는 리치빌 어린이집 친구들 알록달록
 색동옷보다 더 고운마음에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10/21 수원중앙침례교회

꼭 쉬고싶은 휴일이지만 수원에서 의료봉사 오셨어요.
 의료봉사 오셨단 말씀에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던
 어르신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11/2 서울대광초교

벌써 일년이 지났나봐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한나원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기쁘게 해드렸는데
 올해도 변함 없이 사랑을 듬뿍 담아 오셨어요.



11/3 이천초교 3학년 1반

해마다 제자들을 이끌고 한나원을 방문하시는 이인아
 선생님! 지식보다 올바른 사람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에서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직도 아름다운가 봅니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 9월 ~ 2007년 11월

● 한나그린힐



10/17 사동문테소리 어린이집 방문

우리 천사같은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어르신들 앞에서 노래와 율동, 발레로 한껏 재롱잔치를 하였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10/30 의정부 호원 성결교회 방문

어르신을 위해 감사예배 시 특송과 정성어린
후원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황성주 박사의 무병장수를 위한 건강 십계명

1. 새벽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오늘밤 수면의 질이 내일 일의 능률과 직결된다.

2. 아침 산책을 생활화하자.

아침 산책은 체중을 줄여준다.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구상하고 좋은 책이나 명언으로 아침 명상을 시작하자.

3. 부지런히 움직이자 그리고 30분 일찍 출근하자.

준비하는 마음이 자신감을 회복시켜 준다. 일주일에 세 번 30분씩 운동하자. 요즈음의 피로는 휴식부족보다 운동부족에 기인하는 수가 많다.

4.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범사에 감사하자.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밝고 건강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감사는 생을 풍요롭게 하고 부정적인 무드를 밝은 분위기로 변화시킨다.

5.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자.

두뇌는 쓸수록 젊어진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밝고 건강하다. 아름다운 꿈이 생을 활기 차게 만든다.

6.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책을 개발하자.

음주와 흡연과 도박은 결국 스트레스를 더 해준다. 의기소침하면 목욕하자. 아침은 좋은 음악으로 시작하고 잠을 설쳤으면 낮잠으로 보충하자. 근무 중이면 힘차게 기지개를 펴자.

7. 세 끼 식사를 균형 있게 하자.

골고루 천천히 맛있게 먹자. 아침은 죽이라도 먹고 저녁은 약간 줄인다. 자연미각을 길들이고 인공식 보다는 자연식으로 그리고 굳것질은 과일로 하자.

8. 업무 스케줄만 잡는가? 휴식 스케줄을 더 철저히 잡자.

휴식도 일이다. 휴식의 질이 일의 능률과 생산성을 좌우한다. 조금씩 자주 쉬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쉬는 것 보다 효과적이다.

9. 건강과 성공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만들자.

건강과 성공의 동지를 만들자.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자. 건강은 전염성이 강하다.

10. 가정의 화목에 최우선 순위를 두자.

사랑이 충만한 가정은 어떠한 질병이나 스트레스라도 이겨 낼 수 있는 저항력의 산실이다. 화목한 가정생활이 질병을 원천 봉쇄한다.

제22회 경로잔치 및 대표이사 이·취임식

생활복지사 이정환

전 날 밤부터 예기치 않은 폭설과 한파로 도로가 온통 마비되는 것만 같아 마음 졸이며 아침은 맞았는데 춥고 바람은 불었지만 다행히도 날씨가 맑은 것을 보며 많은 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추운 날씨와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아 귀빈들의 도착이 늦어져 10분이 경과한 11시 10분이 되어서야 1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연되는 시간에 축하하러 오신 어울림합주단에서 만들어진 연주를 해주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배 중에 평광교회 살롬중창단이 '기대,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두 곡을 찬양해주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어 평광교회 함창기담임목사께서 '끝없는 섬김의 길' 이란 제목으로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셨고 본 법인의 이사이신 이인식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경건하게 마쳤습니다.

2부 순서로 본 법인을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한나원 대표이사로 재직하시면서 한나원을 위해 헌신·봉사하신 한영제 대표이사

를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하였고, 이어서 정영록 이사님께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한나원 직원들은 꽃다발로 명예이사장님 추대와 대표이사 취임을 축하드렸고 어울림합주단에서도 만들어진 연주로 두 분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한나원과 유대를 맺어 모든 행사에 동참하시고 협조해주신 대월면 노인회 이순문 회장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격려사를 들었으며 이천시장 부인인 이정희 여사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주심으로 2부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행사 후에 친교를 나누며 맛있는 점심을 드셨고 귀가하실 때에 준비한 기념품을 드림으로 제22회 경로잔치 및 대표이사 이·취임식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부득이 경로잔치 순서를 축소하게 되어 어르신들은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하고 기쁜 경로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과 나눔

(2007년 9월 ~ 2007년 11월)

♥ 따뜻하고 아름다운

【후원금】

- 개인 -

한나요양원 : 박양조(3회), 정기현(1회), 이인식(1회), 김종성(1회), 최창선(1회), 정하국(3회), 한동숙(3회), 오은숙(3회), 차관영(3회), 황인철(1회), 남윤수(1회), 신학철(2회), 박광례(1회), 김숙정(1회), 안태자(4회), 김재성(2회), 서상집(1회), 김은하(3회), 김영란(3회), 김갑순(3회), 김정숙(3회), 이옥화(3회), 신연옥(3회), 손희라(3회), 김덕수(3회), 박영옥(3회), 백화점약국(3회), 최애심(3회), 임회환(3회), 이한섭(3회), 이은옥(3회), 김영현(3회), 전주인(3회), 윤혜정(3회), 김영자(3회), 이선재(3회), 조미자(3회), 서상도, (주)한국필름(3회), 김형근, 이선재, 노동완, 삼성김옥현, 이상례, 박동기, 장경선

그린힐 : 한동숙(3회), 김인수(3회), 신수영(3회), 이경자(3회), 전주인(3회), 이정분(3회), 김은수(3회), 한정현(3회), 박은영(3회), 한동원(3회), 박미진(3회), 조재호(3회), 조복남(3회), 박덕자(3회), 김미숙(3회), 주연화(3회), 김효진(2회), 김남현(3회), 박소연(3회), 조원석, 홍성희, 박창주, 임현숙, 김영현, 이소라, 경기도지사, 호원성결교회, 경기도 노인복지시설연합회

- 단체 -

한나요양원 : 동막교회(3회), 평강교회(3회), 평북노회사회부, 한나원교회, 평북노회남시찰회, 하이닉스반도체, 사)한노협(3회), 경노시연, 대한예수교장로회(4회), 평강교회(3회), (주)씨뿌리는사람들(3회), (주)브이텍(3회), 과천교회(4회), 신성교회, 이마트이천점,

【지로후원】

한국내과(3회), 이규원(3회), 박병숙(3회), 김유향(3회), 인영표, 보성여고 교목실

【후원물품】

한나요양원 : 최정희(2회), 장옥이, 이천시장, 이천신협(3회), (주)리연, 한국도로공사 이천시 사(2회), 도드람양돈협회(@회), 대월농협, 농협중앙회, 한영제, 수원지방경찰청 여주지청, 리치빌 어린이집, 협동상회, 장호원상회, 여운하, 영천상회(2회), 대월초교 총동문회, 휠체어 장애인협회(3회), 엄순이, 신순철, 주훈지(2회), 이은자, 이기연, 사동몬테소리 어린이집, 국민생활체육협의회(4회), 이선화, 신천장로교회, 서금숙, 주라장애인쉼터, 이정준, 경덕식품, 덕평교회, 서울대광초교, 이천초교, 김경현, 조춘자, 삼성화재, 신흥교회 바울선교회, 송곡초교, 트렉스타, 신하리 믿음의교회, 과천교회, 이천중앙교회, 사동교회, 전주인, 최재수, 순복음에광교회, 남경진, 무명

정성과 보람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린힐 : 김범수(2회), 이연희, 유니크 펄 닥터스, 최옥순, 강인숙, 장호원상회, 김영복, 이천시 장(조병돈), 이찬호, 사동몬테소리, 최정규, 호원성결교회, 황순례, 이진근, 이영훈, 장봉훈, 황명순, 안디옥교회, 서울 강남 시니어클럽, 홍성택, 협동상회, 이진한, 차종용, 이재원, 오승정, 임 권, 최중기, 홍경택

【자원봉사】

한나요양원 : 효양중(3회), 효양고(2회), 이천고(5회), 대월중(2회), 이천중, 설봉중(6회), 양정여중(2회), 양정여고(2회), 장호원고(2회), 오산대학교(7회), 한라대학교(3회), 청강문화산업대학교(6회), 중앙교회, 자원봉사센터(목욕 3회), 대월사랑회(목욕 2회), 호스피스(목욕 2회), 관동동부녀회(목욕 3회), 이천신협수지회(3회), 발사랑 봉사회(3회), 영광교회(3회), 조승우헤어(3회), (주)대상(6회), 하이닉스(3회), 삼성전기, 한국도로공사, 최정숙(목욕 4회), 조명순(목욕 4회), 장안대 정나눔회, 수원중앙 침례교회(의료, 미용봉사), 김유선, 이보람, 김영현(목욕 3회), 임초희, 김진남(장례2회), 강병훈, 대월주부대학(김장봉사), 자원봉사센터, 바르게살기 운동회(김장봉사)

그린힐 : 이천중앙교회, 신흥교회(목욕 2회), 충일교회(목욕 2회), 장제금(목욕2회), 고주완(5회), 최정숙(3회), 신미래(6회), 전영희, 조은혜, 김은혜, 이예령, 조혜영, 이천고등학교, 한선진, 김영도

짧은 뉴스

- *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현 생활복지사(10월 그린힐), 박미진 물리치료사(11월 그린힐) 선생님이 퇴사하셨습니다.
- * **환영합니다!** - 이정환 생활복지사(10월 요양원), 오옥화 조리원(10월 그린힐), 이소라 생활복지사(11월 그린힐) 선생님이 입사하셨습니다.
- * **직원교육** -
 -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사 연수회-박미진, 김덕수
 - 사회복지분야 인권실현을 위한 핵심관리자 교육 - 이정환, 한동원, 김계옥
 - 경기도 노인복지시설 직원세미나-한동숙, 이정환, 이소라, 김미숙, 이미선, 최애심, 박영옥
 - 노인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연수회-안태자, 이한섭, 김효진, 주연화
 - 인증요원 양성교육-이정환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한나양원 간호사 이미선

만물이 쾅쾅 얼어붙는 겨울의 들녘은 온통 풍성함의 자태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본연의 자세로 곳곳이 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처럼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과 인연을 맺은지도 벌써 십개월로 접어든다. 일전에 몇 번 와 본적이 있었지만 우리어르신들께 어찌 대해야 하는지 막막했었다. 하지만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덕에 웃어른 공경하며 귀여움을 받던 기억으로 내 조부모님 대하듯 공손하고 다정하게 대해 드리고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로 한 마음이 되니 이젠 편안한 내 집처럼 느껴진다.

천진난만하고 깨끗하고 고운 심성을 가진 어르신들과 그동안 가깝고 친해져 다행스럽고 더욱 사랑으로 보살펴 드려야겠다.

어르신 한분 한분 보면 나름의 삶을 사셨을 것이란 생각을 해보았다. 젊고 한창이었을 때 세상을 다 안아도 부족하리 만치 열정과 끈기, 패기로 앞만 보고 달리셨으리라. 나라와 자식 걱정애 늘어난 주름살, 굵이굵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굳건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께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린다.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랫말처럼 우리 어르신 모두 사랑 받기에 충분하다. “소중한 사람으로” 자존감을 높여드리며 나날의 일상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결실하도록 미약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푸르른 하늘을 보자. 매일 뜨는 태양이지만 오늘은 웬지 더 크고 밝게 느껴진다. 여러 어르신들의 가슴의 태양도 크고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힘차고 생동감 넘치는 나날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어르신들과 두 손 꼭 붙잡고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평양장대현교회
체험하러
와요

1907년 대부흥운동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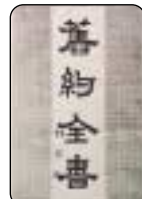
기획전시회

옛 사진에서 읽는 새로운 역사

■ 일시 : 2007년 9월 3일-12월 31일

주관 :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후원 : 한국박물관협회 / 2007년 국무총리복권위원회복권기금
경기문화재단 / 경기도박물관협의회



THE KOREA CHURCH HISTORY MUSEUM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1리 474-2
Tel : 031-632-1391, 1392(Fax)
www.kchmuseum.org

♥ 후원을 안내합니다 ♥

후원물품 : 생활용품 및 음식물

후원금 : 농협 233071-55-000078(이천한나원)

국민은행 230-24-0087-828(한영제)

지로번호 7612035

방문감사예배 : (설교), 기도, 특송, 봉사

기술봉사 : 목욕, 치료, 원예, 이·미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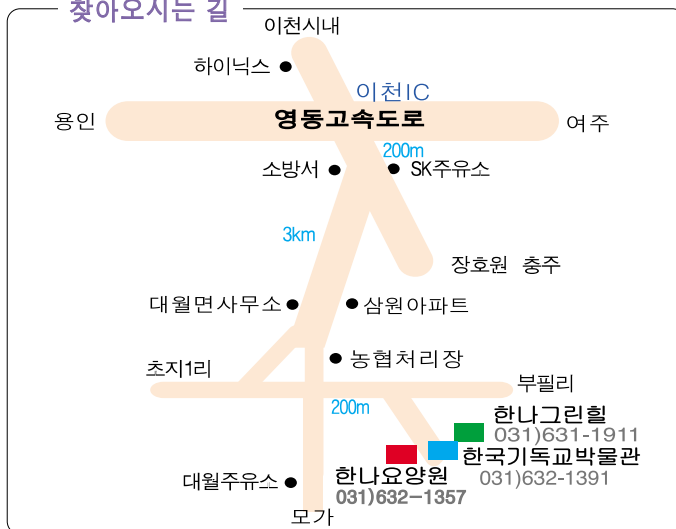
노력봉사 : 기관단체, 학생, 가족, 개인



올 한해도 우리 시설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과 새해에는 환하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고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천한나원 가족일동-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 이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초지리행 버스 탑승.
매 시각 정시, 30분에 운행(소요시간 약 30분)